

# 주간 테러동향

'21. 2. 26(금)

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 유럽

- EU 회원국, 러시아 고위 관리 4명 제재 합의
  - 2.22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러시아 야권지도자 「나발니」를 구속한 러시아 범죄 조사위원회 수장과 교도소 책임자, 대테러·폭동 진압을 주요 임무로 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근위대 책임자 및 검찰총장에 대한 제재를 합의했다고 발표

### 미주

- 美 의회,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대응 추진
  - 2.19 美 연방의회 '아시아태평양 코커스(CAPAC)' 소속 의원들은 최근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 개최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
  - \*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 등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이 원인으로 지목
- 美 국방부, "아프간에서 성급한 철군 없을 것" 성명 발표
  - 2.19 「로이드 오스틴」 美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 국방장관 영상회의(2.18)에서 "미국이 아프간에서 성급하거나 무질서한 철수를 하지 않을 것"이라는 성명 발표
  - \* 미국은 철군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탈레반이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, 동맹국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
- UN 사무총장, 쏠 세계 지도자 인종주의 테러 근절 동참 촉구
  - 2.23 「구테흐스」 UN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'UN 인권위원회'에서 "네오나치즘, 백인 우월주의 및 인종주의 테러 근절이 시급하다"면서 쏠세계 지도자들에게 동참 촉구

## 아 · 태평양

- FATF, '21.6월 임시 총회까지 파키스탄을 '그레이 리스트'로 유지
  - 2.2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는 본회의 결과 파키스탄에 대해 '21.6월 임시 총회까지 '그레이 리스트'로 유지하기로 결정, 현재 파키스탄의 테러 자금 단속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남아 있으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
  - \* 화이트·그레이·블랙리스트로 구분, 블랙 리스트(북한·이란) 등재 시 경제제재 부과
- FIU, 암호화폐거래소 등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강화
  - 2.21 금융정보분석원\*(FIU)은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자금세탁·테러자금 조달 검사·감독을 강화하고,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는 자체 분석을 통해 검찰·경찰·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
  - \*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목적으로 '01년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설립

## 중 동

- 아프간, 탈레반 교도소 공격으로 보안군 23명 구출
  - 2.18 현지언론은 아프간 정부군(ANA)이 하크타시주 카블리 치슬라크에 위치한 탈레반 교도소를 공격하여 수감되어 있는 보안요원 23명과 민간인 1명을 구출했다고 보도
  - \* 탈레반 교도소를 지키고 있던 무장세력은 특공대의 공격 前에 모두 달아나 무력충돌은 未발생

## 아프리카

- 콩고, 자국 주재 이탈리아 대사 사망 원인으로 '후투족 반군' 지목
  - 2.23 현지언론은 콩고민주공화국이 자국 주재 이탈리아 대사 피습 사망(2.22)의 원인으로 후투족 반군 '르완다 해방민주세력\*(FDLR)을 지목하고, 테러리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
  - \* FDLR(Democratic Forces for the Liberation Rwanda) : 反르완다 정부 성향의 후투족 무장단체로 5,000명 규모의 조직원이 활동('00.9월 설립)

파키스탄 법원 겨냥 자살폭탄테러

- '17.2.21 파키스탄 북서부 케이벌파크툰코와주 차르사다지역에서 법원을 겨냥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변호사를 포함한 5명 사망·15명 부상
  - AK-47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괴한 3명이 법원 정문에서 진입을 시도하다 2명은 경찰 등 치안 당국에 의해 사살되었으나, 나머지 1명은 착용중인 폭탄 조끼\*를 터뜨려 자폭
    - \* 同인이 소지한 조끼에는 7~8kg에 달하는 폭약을 탑재했던 것으로 확인
- 사건 직후,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'자마툴 아흐라르(JuA)'는 同 공격을 자신들이 수행했다고 주장하며, 사법부 등 파키스탄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테러\*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
  - \* '17.6월 발로치스탄주 경찰서 겨냥 차량 폭탄 공격으로 사망 13명·부상 20명
- 「나와즈 샤리프」 파키스탄 총리는 관련 사태를 규탄하며 “테러와 극단주의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겠다”며 강경한 대테러 활동을 다짐

< 자마툴 아흐라르(JuA) >

- (목표/이념) 파키스탄 세속정부 타도 및 서남아 內 샤리아(이슬람 율법)에 근거한 神政국가 건설 / 이슬람 극단주의
- (설립배경) '14.8 파키스탄 탈레반(TTP) 지도자 사망('13.11) 후 후임 지도자가 파키스탄 정부와 평화협상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결성
  - \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5.3), 미국('16.8), UN('17.7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 및 아프간 접경지역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탈레반, 파키스탄 탈레반(TTP),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
- (주요활동)
  - '14.11 편잡주 라호르市 검문소에서 자폭테러(60명 사망, 120명 부상)
  - '16.8 발로치스탄주 병원에서 자폭테러(경찰·언론인 등 75명 사망, 112명 부상)
  - '19.5 편잡주 라호르市에서 자폭테러(10명 사망, 25명 부상)